**2024년 10월 17일 멘토링 내용**

**발표 자료 / 보고서 feedback**

- Prototype 부분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을 얼마나 잘하는가보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포인트가 되어야 함.

- (제대로) 개발이 이루어진 후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, 추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좋은 것 같음.

- 데이터 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여 보고서 및 발표 자료에 추가

- 글씨가 많은 것보다는 인포그래픽을 사용하여 큼직큼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.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와 그림 사용.

- 내용이 많으니 각 section 별로 슬라이드를 만들고,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기 보다는 중요한 예시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
- FLOW: 문제인식 (3개 - 포인트, 한 문장 씩) 🡺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건지 🡺 어떤 기여 (사회적, 경제적 등) 🡺 예상 판매량 / 기대심리! 🡨 틀릴 수 있지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

**질문별 feedback**

**이 제품은 공익성을 많이 띠고 있고 아동학대 인구는 적은데 어떤 selling point를 지닐 수 있을지, 어떤 점을 강조해야할지?**

- 기존 선행 연구들을 가져와서 장단점 분석을 한 후 우리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을 것이다 예상 (% 제시) – 비록 정확히 같은 연구는 없지만 개별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있으니 이를 사용 🡺 여러 모달리티를 받는다 + 접근성 향상을 포인트로

-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는 등 사용에 요소가 추가되고 제대로 training하기 위해서도 번거롭고 오래 걸림 🡺 왜 이렇게하는게 좋은지, 이 방식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좋은지 설득해야 함 🡺 전세계 시장 targeting 같은 것 강조. 문화 차이에 따른 맞춤 진입 전략 추가하면 더 좋을 듯 (언어, 문화 등)

- 메타러닝이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 – 다른 방향 (가정 폭력, 범죄 등)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음.

- 아무래도 B2G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product는 맞는 것 같음. 안했을 때 국가, 사회적 손실을 비용으로 책정해서 보여줘도 좋을 듯.

**Xgboost model 중 ensemble vs concatenated model**

- 좀 더 명확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해서 성능이 좋은 것 선택

- logistic regression 결과가 원하는 지표 (학대 의심률)과 대응되는지 확인 필요

- 결측치가 있어도 돌아가기 위해 이 모델을 사용했다면 이를 강조해도 좋을 것 같음. 모든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🡺 기존 데이터의 한계를 새로운 강점으로 twist. 다른 관점으로 보기

**구현 방향성**

- EMR에서 자동으로 정보 끌어오기 (어차피 실제 EMR도 그러니까) + 앞부분으로 이동

- 페이지 나누는 것이 좋을 듯.

- 외형도 EMR처럼 구현하면 더 실감날 것 같음. 이후 기존 방식 대로 확장해서 보여줘도 좋을 듯

- 의견 쓰는 칸 추가